

## ▶ 의생활

## 현대여성패션에 나타난 벨트(Belt)에 관한 연구

김 선 영\*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 전공 조교수)

변화적이며 한계가 없고 연계적이며 개방적인 특성을 갖는 현대패션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법칙과 미를 나타내는데 벨트와 같은 액세서리에 있어서도 다양한 표현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 여성패션에 나타난 벨트에 관한 것으로 벨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제시와 액세서리를 통해 보다 독창적이고 새로운 패션디자인의 전개와 연출이 가능함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해 벨트의 변천과정과 종류를 알아보고, 패션관련 작품집과 국내외 패션잡지 등을 이용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2000년 이후 현대여성 패션에서 벨트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특성을 고찰하였다.

벨트란 허리에 매는 끈 또는 띠 형태의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의류를 꼭 매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 외에 의복에 색상과 장식 또는 강조를 위해 사용된다. 벨트의 기원은 원래 군인들이 군복을 바로 잡거나 무기를 휴대하기 위하여 허리둘레에 입던 군용거들 혹은 밴드에서 찾을 수 있지만 현대패션에 있어 벨트는 허리를 조이는 기능 외에도 스타일을 완성시키는 소품으로 색상, 소재, 표면감뿐 아니라 버클디자인, 벨트를 매는 위치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며, 단순화 되어 가는 현대패션에 있어 의복의 포인트로 이용된다. 특히 현대인들의 강한 개성 표출과 여기에 디자이너들의 실험 정신이 더해져서 보다 혁신적인 디자인의 시도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벨트 역시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다양하고 독창적인 디자인과 연출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단순한 액세서리의 위치를 벗어나서 의복과 마찬가지로 입는다는 개념으로 착용하여 다양한 패션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벨트의 종류와 연출방법을 분석한 결과 그 특성은 여성성의 강조, 장식적 요소로 활용, 연출의 다양성으로 나타났다.

첫째, 주로 가는 벨트 보다는 폭이 넓은 벨트로 허리를 강조하거나, 벨트를 매는 위치에 따라 가슴이나 힙 등을 강조하고 또 타이트한 의상이나 시스루 소재의 의상 위에 느슨하게 벨트를 둘러매어 여성 인체를 그대로 내보이는 등 여성인체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시키는 여성성의 강조를 표현하는 도구로 작용하였다. 둘째, 벨트의 주소재인 가죽의 다양한 가공법과 색상, 그리고 화려한 버클 장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장식의 효과를 나타내며, 가죽이 외에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단순한 실루엣이나 무채색의 의상에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하고 의복 자체의 디자인 요소로 이용하여 의상 전체에 활력을 주었다. 셋째, 벨트를 허리 부분이 아닌 팔, 다리, 어깨 등 신체 각 부분에 두르거나 매기, 겹치기 등의 방법을 통해 연출하고, 벨트를 입는다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실험적이고 새로운 형식, 이탈, 비정상적인 연출이미지들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벨트의 디자인과 연출은 현대패션 트렌드의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는 고정관념의 탈피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움을 추구하여 이미지가 지배하는 현 시대의 미적특성을 반영하였다. 특히 벨트가 갖는 실용적인 목적이외에 상징적이고 장식적인 측면과 연출의 개성적 표현은 이 시대의 새로움에 대한 욕구의 표현이자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논의를 통해 패션디자인에 있어 벨트를 활용한 새로운 디자인 전개에 활용할 수 있고 또 의상뿐만 아니라 기타 액세서리 디자인이나 연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보다 독창적이고 새로운 패션의 이미지 창출이 전개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